

보도설명자료 (‘15.8.2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환경-산업부 전력수요 예측 단판 (‘15.8.20. 경향)

1. 기사내용

- ☐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에 대처할 계획을 세우고자 ‘35년까지 전력수요에 대해 자체예측 실시, 그 결과 ‘29년 최대전력수요에 있어 산업부 예측치와 1만8429MW의 차이 존재(원전 10기 분량)
- ☐ 산업부는 7차 수급계획 수립시 석탄발전 4기를 철회하는 것 이외에 포스트 2020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거의 반영하지 않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① 환경부와 수요 예측결과에 있어 차이가 발생

- ☐ 산업부와 환경부의 예측모델 및 주요변수, 입력전제치가 상이함에 따라 수요예측결과에 차이가 발생하였음
 - 7차 수급계획에서는 우리나라 외에도 주요국들의 30여년간 전력수요 자료를 활용하는 소득계수 패널모형을 사용하여, 선진국들의 전력소비 패턴 및 산업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음
 - 수요예측 결과, 전력수요 증가율 및 GDP 탄력성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여, 점차 전력소비 증가가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

②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고려가 부족

- ☐ 이번 7차 수급계획은 수요관리 목표 설정 및 전원믹스 구성이라는 2가지 측면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하였음
 - 수요관리 목표로 전력소비량의 14.3%, 최대전력수요의 12%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, 이는 2차 에기본상의 목표치(전력소비량의 12.5%↓)보다 진일보한 목표치임
 - 또한 석탄 4기 철회하는 것 외에도 신규 물량을 원전으로만 구성하여 저탄소 전원믹스를 구성하고자 노력하였음
- ☐ 수송·발전 등 개별 부문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올해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후 결정될 예정이며,
 - 부문별 감축목표가 결정된 이후 발전분야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

※ 관련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이원주 과장 (044-203-5240)
이동철 사무관(044-203-5242)

온실가스감축팀 송현주 팀장 (044-203-5370)
한중호 사무관(044-203-5371)